눈길 끄는 톡·톡·행·정

코로나 대응인력 심리 지원

함평군 보건소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정신건강평가·심층 심리상담 등 실시

함평군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서비스를 운영한다.

함평군은 군 보건소, 함평군청, 9개 읍면사무소 등을 '마음안심버스' 거점장소로 지정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을 위한 심리지원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음안심버스'는 전문 보건인력이 경로당, 읍면사무소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리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 대응인력뿐 아니라 유관기관 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도 실시된다.

지원자에게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을 알아보는 정신건강평가,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심층 심리상담, 뇌파, 맥파 측정을 통한 두뇌건강,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치유 콘텐츠 등이 제공된다.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 군에는 정신건강 전문의와 연계한 진료 서비스가 지원된다.

정명희 함평군 보건소장은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직원 분들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정신건강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담양군, 23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위험군 맞춤형 관리로 건강 개선

담양군이 오는 23일부터 '2022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군민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이 없거나 1개 이상의 요인을 갖고 있는 자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진단받거나 해당 질환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참여자는 6개월 동안 보건소에 3회 방문해 혈액검사와 혈압측정, 신체계측, 체성분 검사 등을 받게 되며 건강,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목표설정과 상담이 이루어진다.

또 걸음과 심박수, 소모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량계 및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지급해 이와 연결된 모바일 앱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전문인력에게 개인별 원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월 별로 진행하는 건강 미션에 참여하거나 앱을 통한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상위 순위에 오르면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담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건강위험군의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대상 전기차·전기이륜차 임대 사용료 지원

장성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소형 전기차·전기이륜차 임대 사용료를 지원하는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장성군에 사업장을 등록한 ▲상시근로자 5인 이하(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이하)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초소형 전기차 월 10만원·전기이륜차 월 2만 5000원이다. 24개월 임대 계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 부담액 50%에 해당되는 액수다. 장성군의 지원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진다.

단, 전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전기이륜차를 임대 계약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e-모빌리티 차량은 쎄보모빌리티의 CEVO-C SE·대풍EV자동차의 NICE-EVIL· (주)앨비의 SEMMA-K3 모델이다.

해당 모델을 임대 계약한 뒤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1층 경제교통과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해당 자영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준비하세요"

장흥군, 농업경영체 등록 등 홍보

장흥군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정부정책과 관련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 접수 안내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크게 2개 분야로 나뉜다.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며, 해당기간(2019년 4월1일~2022년 9월30일)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만 지급된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지급되는 것으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0.1ha~0.5ha)의 경우 가구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0.1ha) 이상의 경우 지급 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으로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국·공유림, 타직불금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신청은 서부지방산림청(영암 국유림관리소)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 준공

농가소득 증대·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13일 화순군 도곡면에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순군 제공〉

화순에 농산물 재배·생산과정 체험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 개장했다.

화순군은 13일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옆에 '도곡농협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상생센터'(이하 도곡농협 도농상생센터)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화순군과 도곡농협은 이날 도농상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구충곤 화순군수, 박서홍 NH전남지역본부장, 김종명 화순군지부장, 서병연 도곡농협 조합장, 농협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순군과 도곡농협은 도농상생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이미지 제고, 농산물 판매 증가, 농가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곡농협 도농상생센터 신축 공사는 2020년 10월부터 1년 6개월간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21억원(도비 19%·군비 48%·자부담 33%)이 투입됐다.

2014년 1월에 개장한 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690여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연 8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일일 평균 방문객 수는 1200여 명에 이른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경영 피해 소규모·영세사업자 납부 연장

나주시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최근 밝혔다.

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홈텍스·위택스·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신고를 권장하지만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영 피해가 발생한 소규모·영세사업자는 세금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세자 편의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신고 방법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는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